

공간에게 말을 걸다

독후감

1502034 변윤선

처음 이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였던 거 같다. 아무래도 요즘 설계 과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게 아무래도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공간이 설계자가 여러 개를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점과 또 어떤 느낌을 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무수히 많다는 거가 나를 머리 아프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을 읽었을 때 공간 구성이나 공간을 접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또한 공간을 사람처럼 대하고 끊임없이 찍고 보고 느끼는 저자에 모습에 내 모습 또한 반성하게 되었다.

사람이 접하는 공간은 하나하나 표현을 해 놓았는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 위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그림이었다. 처음에 처음 공간에 들어와서 접하는 면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이 얼마나 높냐 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 보였다. 예를 들어 사람 허리만큼의 위치에 온다고 하는 것과 어깨정도의 위치, 그리고 전체 면 이렇게 있었는데 각각의 면은 다른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쓰이는 공간이나 건물이 달랐다. 허리만큼 한 1M정도의 위치에 오는 벽은 미술관에서 많이들 쓰이는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그 면을 90도나 45도로 돌려서 사람들이 접했을 때도 받아드리는 느낌이 되게 다양하였는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90도나 180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으면 45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보고 느끼고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 할 수 있게 이 사진들을 구성해 놓은 저자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느낄 수 있고 한가지의 모양, 높이로만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벽을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새로웠다. 그리고 벽은 단순히 벽이고 그 모양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나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도와주었다. 생각한 거보다 면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차가운 느낌이나 따듯한 느낌 막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어느 공간에 들어왔을 때 몇 미터 떨어져 있냐 에 따라 느낌을 달리 줄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을 주고 싶냐 에 따라 공간 구성과 벽의 면의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면이 사람을 향한 벽은 아무래도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을 끌어당기는 느낌도 주고 또한 따듯한 느낌을 주어서 많은 건축물들이 이런 공간구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공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양 옆이 같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위에도 수평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경험적으로 안정감이 들었던 거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 면을 다르게 바꾸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 일수도 있다. 대부분의 벽이 이런 면으로 구성하지만 벽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끝부분이 사람을 향하는 모양의 벽들도 있는데 이 벽은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싶은 의도가 강한 벽에 적용 시키면 좋다. 예를 들면 전시회처럼 사람들을 입구로부터 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 면을 구성하면 많은 안내나 표지판을 좀 줄여가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설명으로 들었을 때보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 거부감보다는 정말 설명대로 사람을 이끌려는 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시선과의 각도가 따라가는 벽들은 그거에 따른 질서가 생긴다. 내가 보는 시선에 따른, 그리고 각도에 따라 있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을 것

이고 그래서 그 곳에서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되게 이색적이고 익숙하지만 재미있는 면 구성인 거 같다. 그리고 보통 면들은 위에 마감부분과 아래 마감부분까지 해서 한 층이 벽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떠있는 벽 들도 구성할 수 있다. 다른 벽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벽이라는 역할은 잘 해내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아무런 위치에 구성한 벽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움과 불안함을 주고 정면에 떠 있는 벽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빛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야에 떠있는 벽이 있으면 초원적인 존재의 느낌이 난다. 이 느낌을 주고 싶은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신격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사진에서 보면 벽의 느낌은 다른 벽보다 덜하다는 느낌 또한 든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공간으로써 느낌을 다르게 주고 싶거나 생각하면 벽을 사람의 시선따라 들어갔을 때 느낌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높이 차이이다. 높이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서 그 벽이 시야를 방해하거나 막아서 공간이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이를 낮게 잡아서 전시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이를 기준으로 벽을 구성하다 보면 처음 벽을 구성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도 쉽게 공간변화를 줄 수 있어 좋은 것도 있다. 벽을 그냥 바닥 기준 수직으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는 바닥기준으로 각도별로 벽을 눕히 듯 벽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벽이 기운 쪽은 안락한 느낌을 주고 그 반대쪽은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구성할 수 있어 수직적인 벽보다 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사진에 나온 모든 모습들은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나도 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사진으로 보니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건축물들을 본적도 건축물의 모양이 독특하지 않은 이상 없던 거 같아 많은 건축법들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 점과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을 고려하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벽을 구성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 벽과 같이 어울려 설계되면 좋은 것이 바로 기둥이다. 기둥과 벽은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구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벽에 기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둥으로만 구성된 면이 있고 또한 두개가 합쳐져서 반씩 다르게 구성된 면도 존재한다. 일단 기둥만을 두고 보자고 하면 기둥도 모양과 두께와 위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각형 기둥이라고 하면 벽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사각기둥이 단독으로 있다고 하면 물론 단독으로 있는 공간도 건축물도 많지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차갑고 동떨어진 느낌을 줄 수 있어 벽과 합쳐져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원형 기둥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높은 높이의 건물처럼 기둥이 단독으로 보여져야 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 원형기둥을 많이 구성한다. 원형기둥은 아무래도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주고 부드럽고 따듯한 느낌을 주지만 벽과 같이 구성을 하면 기둥이 강조되거나 따로 노는 느낌을 주거나 한다. 모양이 아닌 굵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얇은 기둥은 기둥보다는 공간을 강조하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기둥이 사람들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둥 옆에 공간들이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둥이 굵으면 기둥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둥의 굵기는 디자인 적인 것보다는 건물의 전체적인 높이나 층의 넓이가 더 많이 관여가 된다. 이런 종류의 기둥들과 벽이 같이 구성되면 단순한 공간이 나뉘고 구성되면서 단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 그게 디자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실용

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간구성을 잘 아는 건축가들의 몫인 거 같다. 이렇게 직선인 벽과 기둥에 대해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읽다 보니 곡선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건축만 해도 그리고 공간 구성하는 것들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곡선 건축물들, 즉 곡선 벽들로 이루어진 건물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을 구성하고 생각해내고 펼친다면 공간 구성할 때의 데드플레이스를 많이 줄여가며 오히려 단순한 직사각 벽보다 아름답고 구성력이 좋을 것 같다. 곡선의 벽이면 말려 들어가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뉜다. 안쪽의 경우는 감싸는 느낌과 뭔가를 전시해 놓은 것도 좋고 다 같은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주고 강조하는 것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바깥쪽에는 안쪽을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좋고 강조하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런 곡선의 벽들과 같이 구성하면 좋은 기둥들은 아무래도 곡선으로 이루어진 기둥들이다. 기둥을 양 옆에 구성해서 벽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기둥을 중앙에 놓은 경우도 있는데 기둥과 벽의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중으로 따지자면 디자인 적인 게 가장 크다. 부드러운 느낌인지 차가운 느낌인지부터 생각하고 주고 싶은 느낌을 선택하고 기둥과 벽을 고르는 것이 좋다. 벽과 기둥은 합쳐질 수 있으며 분해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공간 중 하나는 보이드 공간이다. 개방을 함으로써 주변과 어우러져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마나 보이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냐 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이 다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위 공간이 보이드로 구성하면 자유로운 느낌과 함께 주변과 잘 어울리는 느낌을 주고 중간에 브릿지와 만남으로써 보이드를 구성하면 연결되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 또 점점 넓혀지면서 보이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도 하고 높이를 다르게 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이드 공간을 섞냐 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여러가지 사진과 함께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벽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놀랐고 또한 다양한 건축 트렌드에 맞게 공간 구성하는 법이 적혀져 있는 것 또한 정말 좋았다. 아무리 건축학과 학생이라고 해도 공간이나 건축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흥미가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책은 하나 파트 설명의 수 십 개의 사진으로 알려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웠고 공간 구성하는 설계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물론 다른 건축가처럼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벽이나 이 공간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의 문을 열게 도와준 책인 거 같다. 교수님께서 '건축학과 학생들은 탐구하느라 바빠야 하는 학생'이라고 하였는데 교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다. 건물 하나하나 분석하며 어떻게 서있냐 에 따라 느낌이 다른 것을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찍어서 건물을 구성할 때 적용하도록 탐구해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림 짐작할 수 있게 한 책인 거 같고 실내 구성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